대한하키협회 Korea Hockey Association

HOCKEY KOREA

발행인: 홍 문표 ▪ 편집: 대한하키협회 ▪ 이메일: soc8800@yahoo.co.kr ▪ 사무국 홈페이지: www.koreahockey.co.kr
발행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올림픽회관 602호 ▪ 전화 02-420-4267 팩스 02-420-4138 ▪ 통권 제 17호 2015년 5월 31일

○男하키 대표팀, 월드리그 3라운드 출전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남자 하키 대표팀이 오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펼쳐지는 월드리그 3라운드에 참가한다.

월드리그 3라운드에는 2라운드를 통과한 총 20개 국가가 참가한다. 이들은 각각 10개국씩 나눠 아르헨티나와 벨기에에서 각각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와 벨기에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각각 상위 3위 안에 들면 2016 리우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3위 이상 입상을 못했을 경우에는 상위 입상팀들이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이집트와 한 조에 속해 올림픽 출전권을 건 맞대결을 펼친다.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 파키스탄 하키 대표, '배비장전' 관람으로 한류문화 체험

[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 초청으로 개도국 선수 합동훈련 프로그램 참가차 방한한 파키스탄 남자 국가대표 하키팀(21명: 임원 3명, 선수 18명)이 24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무용극 '배비장전'을 단체 관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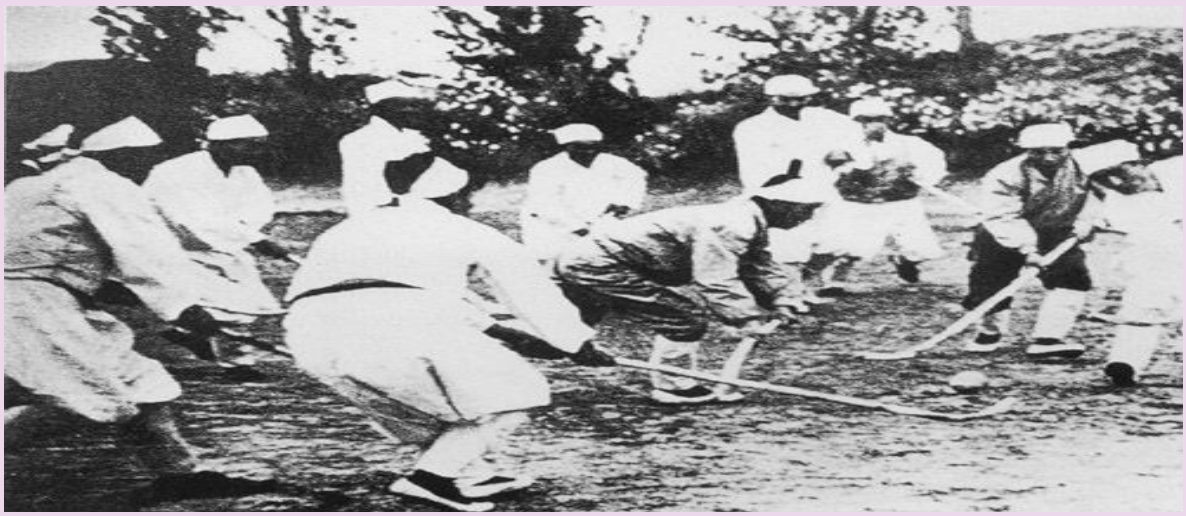
정동극장 정기 공연 프로그램인 '배비장전'은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대표적인 풍자 고전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우리 몸짓에 기초한 춤사위, 장단과 선율, 놀이가 함께 어우러진"(정동극장 공연 소개문 인용) 전통 무용극이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파키스탄 대표팀 일원은 "훈련 마지막 날, 문화체험 행사로 이렇게 한국의 전통공연을 보게 되어 즐거웠다"고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 고유의 의상과 음악, 무용 등도 아름답고 좋았다"고 소감을 더했다.

한편, 오는 6월 4일 정동극장 야외마당 및 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체육인 행복나눔 기금 마련 행사」의 일환으로도 '배비장전' 공연이 두 차례(오후 4시, 8시) 열릴 예정이며, 공연 입장료 수익 전액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체육인들을 돕는 기금 조성에 쓰일 계획이다.

이은경 기자 kyong@xportsnews.com

< 하키 뉴스>

○ 100년 전에도 필드 하키를?



<연재> 서울 그때를 아십니까

세월에 따라 강산도 변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굳이 세월이라고 할 것도 없이 빨리 빨리 변하고 있는 게 서울의 모습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생겨나는 아파트, 그리고 새로운 빌딩들…. 아주 정신을 못차릴 정도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도 사방에선 고공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포크레인이 땅을 파내고 있는 모습들 뿐이에요.

이러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찾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속도가 빨라졌을까요? 그건 근대화 이후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에요.

조선 왕조 이후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서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이 조선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시골사람들에게는 살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이에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 새끼는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이 생겨났을 정도에요.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사진으로 보는 서울>을 중심으로 근대화 과정에서의 서울을 매주 소개해볼까 해요. 사진에서 느껴지는 서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오늘의 기반이 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더욱이 강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충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셈이죠. 옛 서울의 모습도 감상하고 변화하는 생활상도 느껴보세요.

○ 필드하키

개항 이후 서양인들이 도성 내에 들어오면서 서울은 여러 부분에서 변화를 겪게 됐다. 그렇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못했고, 극히 일부만 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양반들은 왜 땀 흘려 운동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스포츠로는 철봉과 필드하키 · 야구 · 정구 등이 있었다.

김승현 기자 okkdoll@naver.com 위클리서울

○ 男하키 '박지성'·'이동국'… "올림픽 티켓 꼭 딴다"

국가대표 슈터 장종현· 남현우
- 장종현, 유럽리그 실전경험 풍부. 강철체력 갖춘 대표팀'기둥'
- 남현우, 동물적인 득점감각 강점. 작년 인천AG서 15골 합작

장종현(31·김해시청·사진 왼쪽)은 남자하키의 '박지성', 남현우(28·상무·오른쪽)는 '이동국'으로 불린다.

둘 다 국가대표팀의 주득점원. 페널티 코너에 의한 득점 전술에서 마지막 샷을 담당하는 슈터 듀오다. 페널티 코너는 수비수가 반칙을 했을 때 공격팀이 갖는 프리 슈팅 찬스로 축구의 프리킥과 비슷하다. 상대 골대 옆 엔드라인에서 골대 정면의 슈팅 서클로 공을 패스하면 서클 라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수가 공을 받아 슈팅을 하는 전술이다. 하키에서는 페널티 코너에 의한 골이 전체의 70~80%에 이른다.

장종현은 박지성에 비유된다. 2003년부터 12년간 대표팀의 기둥으로 '장수'하고 있다. 어깨가 강하고 스피드와 체력이 뛰어나 속공에 강하다. 네덜란드리그 등 풍부한 유럽리그 경험을 지니고 있다. 지칠 줄 모르는 강철체력까지 박지성을 꼭 빼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현우는 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동물적인 득점감각을 지니고 있어 이동국에 비유된다. 둘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이 넣은 총 28골 중 절반이 넘는 15골(장종현 9골, 남현우 6골)을 합작했다. 그러나 인천아시안게임에선 인도와의 4강전에서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티켓도 놓쳤다. 올해 목표는 올림픽 진출권 확보.

남현우는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결승 진출이 좌절돼 너무 아쉽다"며 "아직 기회가 있는 만큼 올림픽 티켓 확보와 명예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4일(한국시간)부터 15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월드리그 3라운드에 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다. 10개국 중 3위 안에 들면 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다. 1996년 이후 5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했기에 티켓을 양보할 순 없다. 그러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랭킹 8위의 한국보다 강한 팀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속한 A조에는 네덜란드(2위), 뉴질랜드(7위)가 버티고 있고, B조에는 독일(3위), 아르헨티나(6위)가 있다.

장종현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올림픽 출전권을 꼭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 전국하키대회 김해시청, 인천시체육회 꺾고 '우승'

제34회 협회장기 전국 남·여 하키대회에서 김해시청이 남자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김해시청은 8일 충북 제천 청풍명월 국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인천시체육회를 5-4로 꺾고 우승했다.

전반을 3-2로 마친 김해시청은 후반 한 골을 추가하며 4-2로 앞서갔으나, 경기 막판 잇따라 골을 내준 뒤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힘겹게 승리했다.

지난 1일부터 열린 이번 대회에는 남녀 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에서 총 51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중등부는 남녀 각 8개팀, 고등부는 남자 10개·여자 7개팀, 대학부는 남녀 각 4개팀, 일반부는 남자 4개·여자 6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렸다. 남자 중등부와 고등부는 아산중과 아산고, 남자 대학부는 순천향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또 여자 중등부는 매원중, 고등부는 태장고, 대학부는 한국체대가 우승했다. 여자 일반부는 아산시청이 목포시청을 꺾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태장고, 제천상고 꺾고 전국남녀하키대회 여고부 '2연패'

수원 태장고가 제34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 여자고등부서 2연패를 기록했다.

태장고는 6일 충북 제천 청풍명월국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6일째 여고부 결승서 제천상고를 연장 접전 끝에 3-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온양한올고에 4-0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태장고는 이로써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에 성공함과 동시에 시즌 첫 패권을 품에 안았다.

태장고는 지난해 협회장기와 중고연맹회장기, 대통령기, 전국체전까지 우승하는 등 시즌 4관왕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다시 협회장기서 우승하며 여고부 전국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태장고는 김예은이 전반 15분 페널티코너를 침착하게 성공시켜 기선을 제압한뒤 전반을 1-0으로 마쳤다.

하지만 태장고는 후반들어 맹 추격한 제천상고에 10분과 20분 잇달아 실점을 허용하며 역전당했으나 25분 김정인이 동점골을 성공시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태장고는 연장 후반 선제골의 주인공인 김예은이 페널티코너로 결승골을 성공시켜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태장고 송예림은 여고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강현영 코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고창석 태장고 감독은 “새로 부임한 노갑빈 교장이 하키부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올해도 좋은 성적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주축 선수들이 경기를 잘 이끌어가 너무 고맙고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신용규기자/shin@joongboo.com

○ 제천상고 전국 하키대회 준우승

제천상업고등학교(교장 권재남)는 여자 하키부(지도교사 김경범)가 제34회 협회장기 전국 남·여 하키대회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밝혔다.

제천상고는 제천 청풍명월국제하키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지난 5일, 구암고와 준결승전에서 3:2로 승리했다. 다음날 결승전에서는 태장고와 2:2로 후반전을 끝내고 연장전에서 접전을 벌인 끝에 3:2로 아쉽지만 준우승했다.

김경범 지도교사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내준 학생들이 고맙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더 노력해 앞으로 다가오는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천상고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부상투혼을 발휘하며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수상해 학교의 명성을 드높이기도 했다.

[충북=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desk@jungbunews.com

○ 아산중 하키 협회장기 3연패

아산중학교(교장 오대식)하키부가 협회장기 하키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우승기 영구 보관의 영예도 함께 안았다.
아산중 하키팀은 지난 1일부터 충북 제천 국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제34회 협회장기 전국하키대회에서 경남 김해서중을 승부차기로 누르며 준결승전에 진출해 충북 제천중을 0-3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아산중은 대회 4일째 열린 결승전에서 전남 송광중을 상대로 팽팽한 접전끝에 전후반 2-2 무승부 상황에서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아산중은 2013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우승을 하며 대회 최초로 우승기 영구보관의 영광을 얻어 승리의 기쁨을 배가시켰다. 이와 함께 개인시상에서는 3학년 오한빛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정용균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도 함께 수상했다. 특히 최근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산중 선수들의 실력은 교내 연습장조차 없이 타 구장을 빌려 사용하며 얻어낸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정용균 감독은 “지난 4월 경남 김해에서 열렸던 KBS배 춘계 남녀하키대회 중등부 우승에 이어 2관왕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하키명문중학교임을 입증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이러한 우리 선수들의 기세가 전해져 올해 남은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물론 내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우리지역 하키팀의 우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아산지역 하키팀은 아산중 외에도 여자일반부 아산시청팀, 남자대학부 순천향대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고부에서는 온양한올고가 3위를 기록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 남자하키 신석교 감독 "올림픽 티켓 쉽지 않아, 최선 다할 뿐"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한국 하키 남자대표팀 신석교 감독은 20일 "내년 리우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는 월드리그의 조편성이 어렵게 배정돼 올림픽 티켓을 따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이날 오후 태릉선수촌에서 펼쳐진 파키스탄 대표팀과의 두 번째 평가전에 앞서 기자와 만나 올림픽 출전 전망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대표팀은 내달 6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월드리그 3라운드에 출전해 올림픽 티켓을 노린다. 2라운드를 통과한 국가 등 총 20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0개국씩 나눠 아르헨티나와 벨기에에서 각각 리그전을 치른다.

그는 "강팀들이 우리와 같은 조에 몰려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며 "4강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표팀은 네덜란드(세계랭킹 2위)·독일(3위)·아르헨티나(6위)·뉴질랜드(7위)·스페인(11위)·캐나다(15위)·일본(16위)·이집트(20위)·오스트리아(22위)와 일전을 갖는다. 한국(8위)보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랭킹에서 앞선 팀들이 몰려 있고, 스페인 등도 만만치 않아 4강에 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신 감독의 설명이다. 이번 대회에서 4강 이내에 들어야 안정적으로 올림픽 티켓을 획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을 장담할 수 없다.
올림픽은 아르헨티나와 벨기에에서 열리는 월드리그 각 상위 3위 이내팀, 5개 대륙 우승팀, 개최국 등 12개팀이 진출한다. 한국은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3위에 그쳐 티켓을 따지 못했다. 그는 "1996년 이후 5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티켓을 따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작년 아시안게임 이후 엔트리에 포함된 18명 중 6명을 세대교체했다"며 "이들 젊은 선수의 패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한 국가도 만만한 팀이 없지만 4강에 들기 위해 8강전을 결승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감독은 "올림픽 출전은 선수 개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하키의 발전을 도모하고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줘야하는 책임이 있다"며 올림픽 출전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선수들과 함께 지금의 당면 목표인 올림픽 출전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후회없는 경기를 할 것"이라고 선전을 다짐했다.

taejong75@yna.co.kr

○ 대구시하키협회장의 특별한 선물

김재홍 회장 취임식 경비로 6개 학교 하키부에 물품 전달

"하키 협회 사정과 선수들의 현실을 잘 아는 만큼 부회장들과 함께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구시하키협회 제15대 회장을 맡은 김재홍(53) 대호약품 대표는 하키 명문으로 이름을 날린 대구 달성고 출신이다.

주위에 하키부 출신 동창을 여럿 둔 그는 비인기 종목인 하키의 어제와 오늘을 잘 안다. 대구시하키협회 김재홍 회장은 "대구 하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보고 싶다"고 했다.

대구하키협회에서 2009년부터 6년 동안 부회장으로 활동하다 살림을 책임지는 회장을 맡은 그는 스승의 날인 이달 15일 조용하게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는 하키부를 둔 대구 성지중과 안심중, 구암중, 달성고, 구암고, 대구과학대 등 6개 학교의 교장과 감독 등 관계자들을 초청, 음식을 대접하고 격려했다.

취임식을 따로 하지 않은 김 회장은 이날 그 경비로 6개 학교에 필요한 선물을 했다. 학교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 하키공과 노트북, TV 등을 선물했다. 또 이달 30일 제주도에서 개막하는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하는 성지중과 안심중에는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전을 부탁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남자 실업(대학)팀을 창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운동팀의 정점은 실업팀이다. 학교와 실업팀의 연계 육성을 통해 대구 하키의 새로운 전성기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고 했다. 대구에는 남녀 중`고교 팀과 여자 대학팀이 있으나 남자 대학과 실업팀은 없는 상태다.

김교성 기자 kgs@msnet.co.kr

<각급 대표팀 소식>

□ 여자 국가대표팀

1. 여자대표팀 5월 중국(북경)전지훈련

❶ 훈련기간: 2015. 05.12. ~ 05.24.(13일간)

❷ 훈련장소: 중국(북경)

❸ 훈련인원: 지도자 4명, 물리치료사 1명, 선수 24명(총29명)

❹ 테스트메치 결과: 5전 2승 1무 2패

- 2016 리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한진수 감독이 이끄는 여자국가대표팀은 6월 20일부터 벨기에서 개최하는 월드3라운드 대회를 대비하여 5월 국내대회(협회장기)를 마치고 휴식도 없이 바로 태릉선수촌으로 소집하여 3일간 회복 훈련을 마치고 중국 대표팀 초청으로 5월1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중국대표팀과 테스트메치 5차전을 큰 부상없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5월24일 귀국하여 바로 태릉선수촌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 이번 중국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한진수 감독은 지난 4월 뉴질랜드 대회에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개인 1대1 수비 및 써클내에서 상대에게 쉽게 P.C를 허용하는 수비력이 이번 중국 전지훈련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보완한 결과 매우 향상되었으며, 또한 세부적으로 페널티코너 수비 방어력과 공격라인의 득점력도 많이 향상되었

지만, 아직도 페널티코너 성공률이 저조한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훈련 및 연습경기를 통해 보완하여 6월 20일부터 벨지움에서 개최하는 월드리그 3라운드 대회에 참가하여 4강의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다짐을 하였다.

❺ 테스트메치 경기결과 (5전 2승1무2패)

(1차전) 05. 14. 16:00 한국 2 : 1 중국

(2차전) 05. 15. 19:00 한국 1 : 1 중국

(3차전) 05. 18. 16:00 한국 1 : 4 중국

(4차전) 05. 20. 16:00 한국 2 : 1 중국

(5차전) 05. 22. 16:00 한국 0 : 3 중국

□ 남자 국가대표팀

1. 남자대표팀 5월 훈련

❶ 훈련개요 : 남자대표팀은 4/22 ~ 5/12까지 호주 전지훈련 및 4개국 테스트매치와 5/15 ~ 5/24까지 파키스탄 방한 테스트매치와 월드리그 대회를 위한 마무리 훈련일정으로 6월에 개최되는 월드리그 3라운드대회(올림픽 예선대회)를 준비하였으며, 실전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5/25(월) 아르헨티나로 출국

❷ 훈련장소 : 호주(멜버른, 호바트), 태능선수촌, 아르헨티나(부에노스 아이레스)

❸ 전지훈련 및 테스트매치 훈련일정

☞호주 전지훈련 및 4개국 테스트매치 : 4/22(수) ~ 5/12(화) 21일간
[참가국 : 호주, 호주A, 한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태능선수촌 훈련 및 파키스탄 방한 테스트매치 : 5/15(금) ~ 5/24(일)

❹ 훈련인원 : 지도자 4명, 선수 24명 총28명

❺ 훈련목표 :

☞ 체력훈련 주기화 단계에 따른 파워체력 및 회복체력 훈련 실시

☞ 호주 전지훈련 8경기를 통한 팀전술 및 조직력 완성

☞ 파키스탄 평가전을 통한 개인의 경기운영능력향상과 부분전술, 팀전술의 완성

☞ 다양한 A매치를 통한 월드리그 출전팀에 따른 맞춤전술 테스트 및 완성

☞ 많은 보강이 필요한 GK의 페널티코너, 필드골 상황에 따른 세이빙 능력 강화

☞ 월드리그 대회를 준비한 다양한 세트 완성(롱코너,25야드세트,PC세트,PSO)

2. 호주 전지훈련 및 테스트 매치 경기 결과

1차전 4/27(월) 한국 3 vs 1 VIC (PSO 5:2)

2차전 4/28(화) 한국 3 vs 2 VIC (PSO 4:3)

3차전 5/02(토) 한국 1 vs 3 호주-A (PSO 3:4)

4차전 5/03(일) 한국 0 vs 6 호주 (PSO 4:3)

5차전 5/05(화) 한국 1 vs 4 파키스탄 (PSO 4:4)

6차전 5/07(목) 한국 0 vs 4 호주 (PSO 5:4)
7차전 5/09(토) 한국 4 vs 5 파키스탄 (PSO 5:2)
8차전 5/10(일) 한국 3 vs 1 뉴질랜드 (PSO 5:3)

3. 파키스탄 대표팀 방한 테스트매치 결과

1차전 5/18(월) 한국 4 vs 0 파키스탄 (PSO 4:2)
2차전 5/20(수) 한국 3 vs 3 파키스탄
3차전 5/22(금) 한국 2 vs 2 파키스탄

4. 호주전지훈련 및 테스트매치를 통한 평가

☞ 많은 국제경기를 통하여 새로운 선수와 경험부족 선수들의 경기를 통한 기량 성장
☞ 경기를 준비하고 수행하면서 경기운영능력과 팀전술을 이해하며 경기력을 향상
☞ 호주의 강한 압박과 속도 빠른 경기에 적응하고, 배우면서 프레스 탈출능력 향상
☞ 페널티코너 실점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면서 대비법에 대한 방안 필요
☞ 매경기 승패에 중요한 골키퍼 선수들의 페널티코너 세이빙능력과 다양한 상황에서 허용하는 필드 슛팅에 따른 세이빙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더욱더 강화되어야 승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매경기마다 느끼면서 남은기간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매경기 다양한 포지션에 선수들을 테스트하여 본 대회에 대비한 멀티플레이어와 상대팀에 따른 맞춤전술을 준비하여 대비하고 수행하면서 경기운영능력과 팀조직력이 경기를 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여건과 남자대표팀의 상황으로는 국제경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면서 남은 기간 준비를 계획한다
☞ 마지막경기에서 올림픽예선 같은조에 편성된 뉴질랜드를 최근에 패배를 통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경기 승리를 통하여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본 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한 좋은 승리를 경험한 것이 큰 성과이다

5. 월드리그 3라운드대회(올림픽예선대회) 출전 명단

▷감독: 신석교
▷코치: 폴리섹,유문기
▷선수트레이너: 김명겸
▷비디오분석관: 이경석((주)스포츠코드 코리아)
▷선수: 이승일, 유효식, 오대근, 이남용, 장종현, 김영진, 홍두표, 이승훈, 조석훈,
김성규, 현혜성, 남현우, 김재현, 이대열, 강문규, 정만재, 이정준, 김주훈

"부담은 되지만, 한국남자하키를 대표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투혼의 경기로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목표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신석교 남자대표팀 감독

*** 대회기간 : 2015. 6. 3. - 6. 14.**
*** 대회장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 조편성 및 경기일정표 : 대한하키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koreahockey.co.kr)**

<분과위원회 소식>

1. 경기분과위원회

○ 제34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대회 개최
- 기간 : 2015년 5월1일 ~ 5월8일
- 장소 : 충북 (제천)
- 참가팀 : 총51팀

○ 제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개최
- 기간 : 2015년 5월29일 ~ 6월2일
- 장소 : 제주 국제대 하키경기장
- 참가팀 : 총25팀 (14개 시도)

2. 경기력 향상위원회

○ 제2차 남녀 경향위원 회의
- 일시 : 5월 20일 수 14시
- 장소 : 태능선수촌 챔피온하우스 회의실

3. 심판 분과 위원회

○ 제1차 심판 분과 위원 회의
- 일시 : 5월 4일 토 16시
- 장소 : 제천 하키경기장 회의실

< 월간하키 협회 소식 >

○ 제34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하키대회 시상식 장면

○ 제34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하키대회경기결과

구 분	남 중 부	여 중 부	남 고 부	여 고 부	남 대 부	여 대 부	남 일 반	여 일 반
1 위	아산중	매원중	아산고	태장고	순천향대	한국체대	김해시청	아산시청
2 위	송광중	의림여중	유성고	제천상고	제주국제대	인제대	인천시체육회	목포시청
3 위	신암중	송곡여중	성일고	구암고	서울대	제주국제대	경북체육회	(주)KT
	제천중	부평서여중	용산고	온양한올고	한려대	경희대	국군체육부대	평택시청
최우수선수상	오한빈 (아산중)	조미희 (매원중)	김 혁 (아산고)	송예림 (태장고)	서민규 (순천향대)	최수지 (한국체대)	박성철 (김해시청)	김종은 (아산시청)
우수선수상	조현성 (송광중)	박영란 (의림여중)	오승환 (유성고)	김가희 (제천상고)	김두건 (제주국제대)	김지윤 (인제대)	노현우 (인천시체육회)	서다해 (목포시청)
득 점 상	이종현 (송광중) 엄현웅 (김제중)	김선아 (매원중)	이승빈 (아산고)	홍희경 (구암고)	문영수 (순천향대)	최희진 (경희대) 조혜진 (인제대)	우대명 (인천시체육회)	김민영 (목포시청)
지 도 상	정용균 (아산중)	오선유 (매원중)	홍은성 (아산고)	강현영 (태장고)	이광수 (순천향대)	이정재 (한국체대)	김윤동 (김해시청)	유덕 (아산시청)

○ 제58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개최 통보

본 협회에서는 2015년도 국내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제58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는바, 참가를 희망하는 소속단체는 기일내에 참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회 명 : 제58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나. 대회기간 : 6.23 - 6.30 (8일간)

※ 동 대회는 참가팀 수에 따라 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다.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하키장 / 묵호여자중학교하키장

라. 참가신청 : 대회요강 참조

마. 신청마감일 : 6. 8(월) 17:00

바. 감독자회의 : 6.12(금) 14:00 서울 올림픽 파크텔 3층 회의실

사. 참 가 비 : 고등부 - 10만원 / 대학·일반부 - 20만원

계좌번호 - 수협 026-01-181085(예금주 : 대한하키협회)

아. 참고사항

- 참가비 미입금 시 참가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 중 1) 필히 지참
  <관련:대한체육회 경기운영팀-2923호>

< 시도지부 및 산하연맹 소식 >

○ 서울시하키협회 소식

서울시하키협회는 2015.06.13 제35회 서울특별시협회장기대회 겸 제96회 전국체육대회 2차 예선대회, 제5회 서울시유소년하키대회를 송곡여자중고등학교 하키장에서 개최합니다.

1. 대 회 명 : 제35회 서울특별시협회장기대회 겸 제96회 전국체육대회 2차 예선대회
   제 5회 서울시유소년하키대회
2. 대회일시 : 2015. 06. 13(토)
3. 대회시간 : 10:00 ~ 18:00
4. 대회장소 : 송곡여자중.고등학교 하키경기장
5. **대회참가팀**

일시	대회명	종별	참가팀	비고
6/13	제35회 서울특별시협회장기대회 제5회 서울시유소년하키대회	초등부	유소년 남자팀/여자팀	
		중등부	용산중/신암중/송곡여중	
		고등부	용산고/대원고/송곡여고	
	제96회 전국체육대회 2차예선대회	고등부	용산고/대원고	용산고 1승
			송곡여고	단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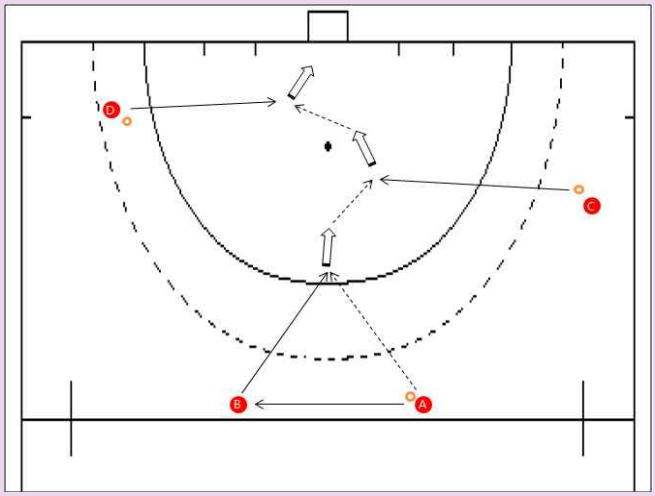
○ 제주도 하키협회장 이. 취임식

- 일시 : 5월 29일 (토) 18시 30분
- 장소 : 제주 이스타 호텔
- 내용 : 윤상택 회장께서 제주도하키협회를 창설하여 제주도 하키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신임 강구원 (통도종합건설 대표) 회장이 앞으로 제주도협회를 맡아서 제주도 하키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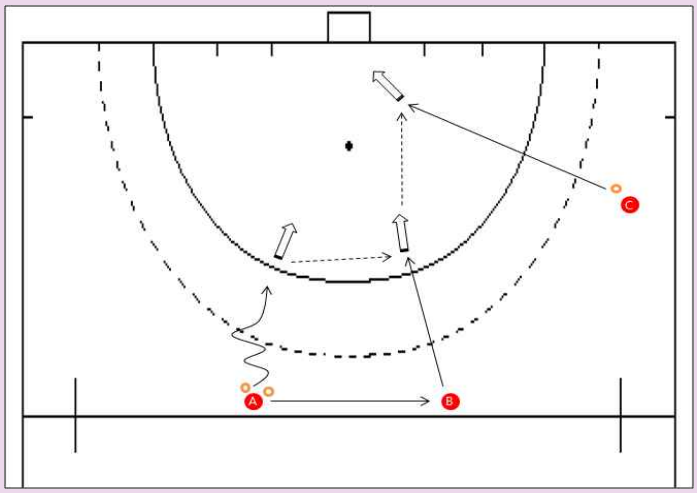
<기고 : 하키 기술>

제 16편 : HOCKEY TRAINING XVI

1.슈팅훈련 1



2.슈팅훈련 2



1.슈팅훈련 1

훈련 방법

A- B에게 패스하고 전방으로이동하여 다시 B에게 패스를받아 1차 슈팅 후 중앙으로 이동하여 C에게 패스를 받아 2차 슈팅 후 왼쪽 골대 앞으로 이동하여 D에게 패스를 받아 3차 슈팅을 한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슈팅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B- A에게 패스를 받아 재차 A에게 패스한다.
C, D- 움직이는 A에게 강하게 크로스 한다.

2.슈팅훈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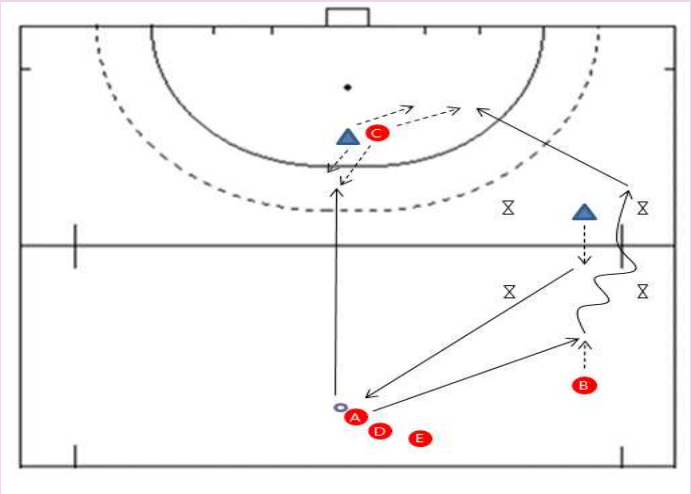
훈련 방법

A- B에게 공간패스를 하거나, 박스 안 수비가 처리한볼을 C에게 패스 한다.
B- 전방으로 움직이며 A에게 패스를 받아 박스 내로진입하여 수비를 제친 후 C에게 패스한다.
C- B가 박스를 통과하거나, A에게 처리된 볼을 수비를 피해 움직이며, 패스를 받아 슈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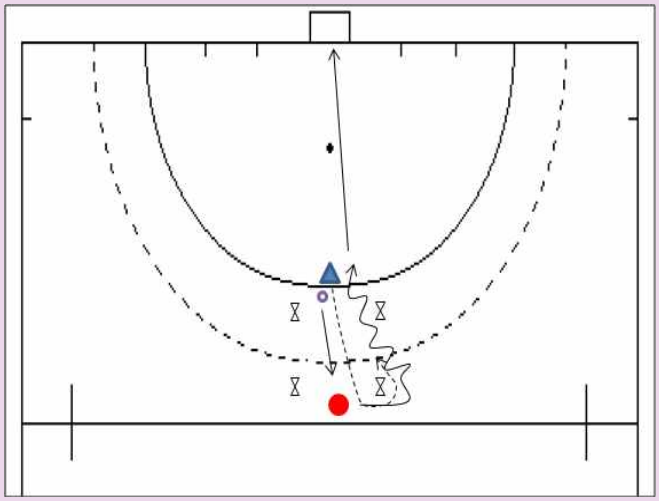
수비- 1. 박스 안 수비는 B에게 볼을 빼앗아 A에게 패스한다.

2. 서클 안 수비는 적극적인 마크와 압박으로 C에 슈팅을 저지한다.

3. 1:1 훈련 1



4. 1:1 훈련 2



3. 1:1 훈련 1

훈련 방법

A- B에게 공간패스를 하거나, 박스 안 수비가 처리한볼을 C에게 패스 한다.
B- 전방으로 움직이며 A에게 패스를 받아 박스 내로진입하여 수비를 제친 후 C에게 패스한다.
C- B가 박스를 통과하거나, A에게 처리된 볼을 수비를 피해 움직이며, 패스를 받아 슈팅을 한다.

수비- 1. 박스 안 수비는 B에게 볼을 빼앗아 A에게 패스한다.
2. 서클 안 수비는 적극적인 마크와 압박으로 C에 슈팅을 저지한다.

2. 1:1 훈련 2

훈련 방법

수비- 공격에게 패스를 주고 전방으로뛰어가 공격이 움직이는 쪽 콘을돌아 수비를 시작한다.

공격- 수비에게 패스를 받아 우측 콘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수비를 피해 중앙공간으로 드리블하여 슈팅을 한다.

○유능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도자는 가르칠 내용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입하도록 이끄는 전문성도 요구된다.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은 상과 벌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학습자들이 과제를 완수 또는 성취하도록 하고 있다.

유능한 지도자일수록 학습자들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독특한 동기 부여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상·벌과 같은 외적인 동기 유발보다는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적 동기 유발을 활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동기 유발의 원리나 지침은 무엇이 있을까?

◎ 학습할 과제의 가치를 인식시켜라

지도자는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대-가치 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활동에는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은 제각각으로 과제나 활동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정리된 가치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도달 가치(attainment value)는 어떤 과제를 잘 해내는 것의 중요성 또는 어떤 활동에서 잘 한다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를 의미한다.

둘째로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는 활동에 붙박여 있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말한다.

셋째, 유용성 가치(utility value)는 과제의 활용성과 관련된다. 과제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재미도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목적 내지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때 이것이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가치(perceived value)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도달 가치와 본질적 가치는 체육(스포츠) 교육 맥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학습자들이 과제 활동에 대한 가치 또는 참여해야 할 이유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유용성 가치와 인지된 가치도 함께 강조해야 한다.

◎ 학습자가 성공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라

학습자는 학습 과제가 충분히 가치 있고 학습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후에라도 자신이 그 활동을 충분히 성공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학습자는 학습 과제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픈 생각을 가지고 성취 도전 환경 속으로 뛰어들지만, 자신이 성공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금방 포기하고 만다. 따라서 지도자는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절하고, 학습자의 도전심을 자극할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일단 학습자가 도전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후에 기능의 향상 정도에 따라 과제의 난이도를 심화해 전개하면 된다.

◎ 학생에게 관심을 주고 배려하라

학습 분위기가 긍정적이도록 하는 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배려이다.

지도자가 학습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대하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학습자들이 학습 과제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의 배려는 학습자의 과제 성취에 대해 결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지도자의 배려가 담겨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경쟁보다는 개인적인 숙달을 강조하라

학습의 향상은 과제의 숙달을 강조하는 분위기나 과제에 몰입하는 분위기에서 나타난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경쟁에서의 성공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기 개발이나 과제 숙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모든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지도자가 학습자들에게 자기 기량의 향상을 강조하면서 특정 기준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성공으로 인정해주면 모든 학습자들이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 만약 지도자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즉 성공의 기준을 최고의 경지로 규정하게 되면 소소의 학생들만이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경쟁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학습에 경쟁을 도입할 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작 학습 과정을 통해 자기의 기량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학습자들에게 도리어 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내적 동기를 강화하라

일반적으로 활동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뉜다.

예컨대, 학습자들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과제를 완수하게 될 경우에 학생들은 외적 동기 유발이 된 것이지만, 재미나 흥미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내적 동기 유발이 된 것이다.

체육(스포츠)교육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는 학생들이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동시에 적극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성향을 길러주는 데 있다.

만약 지도자가 통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것을 강요하면, 학생들은 교사가 통제하지 않는 상황이 될 때 더 이상 그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려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학습자가 체육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수행하도록 내적 동기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스포츠둥지 신기철(전주교육대학교 교수)

공지사항

2014년 1월부터 발간되는 코리아하키 소식지는 협회 사무국 직원이 편집위원이 되어 별도의 예산없이 발간되는 월간지로 하키인들의 소통과 화합, 정보공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회를 후원해주시면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협회의 운영방향과 좋은 소식들을 알림으로서 협회와 하키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월 다양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키를 사랑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하키협회 발전기금 모금 안내 ◆

하키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

본 협회에서는 2014년 제 2차 이사회에서 하키발전기금운영위원회 규정이 재정됨에 따라 10억원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하키 저변확대와 꿈나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키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키협회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계신 본 협회 임원 여러분, 각시도 회장님, 전무이사님, 그리고 각 팀의 감독선생님들께 협조의 부탁을 드리며 직책에 따라 협찬 금액을 산출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전 기금 협찬 금액 참고표

금 액	직책별 구분	예상 금액
100 만원	각 시도 협회 회장님, 산하 단체 회장님, 본협회 부회장님	2,300 만원
30 만원	본협회 이사님	450 만원
10 만원	각 시도 전무이사님 각 팀 감독님	450 만원
합계		3,200 만원

본 기금은 본 협회 연간 정규사업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2014년에는 5천만원, 2015년 1억원을 목표로 하여 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 총 10억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원 제도”에 하키 가족 및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지원 신청 양식)

▣ 후원자 성명 : _____

▣ 후원 금액 : _____

▣ 후원자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 후원 계좌 안내 :

- 은행 및 통장 번호 : 수협 / 026-01-181085
- 예금주 : 대한하키협회

▣ 후원자를 위한 혜택 :

- 월간 하키소식지 송부
- 하키홈페이지에 기부자 성명 게재
- 행사에 서포터즈로 참여 기회 부여
-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문의사항 : 대한하키협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602호/T. 02-420.4267)